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2월 후원미사는 18일, 2018년 1월 후원미사는 15일, 2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7년 10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20,761,580	전월이월금	1,373,740
지 로	2,319,190	우리은행	8,256,840
국민은행	4,493,000	하나은행	991,150
조흥은행	115,010	신한은행	810,130
외환은행	457,500	제일은행	175,020
농 협	1,145,000	기업은행	215,000
우 체 국	40,000	지정기탁	370,000
		교구보조	-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2,485,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37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18,680,000	잔액(이월금)	2,081,580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7. 11 / 제17호

펴낸날 2017. 11. 20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글

얼마전 교황님께서 설립하신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중 하나인 교황청 이주사목국에서는 교황님의 승인을 거쳐 각 나라에게 난민과 이민을 위한 구체적인 사목행동지침을 전해왔습니다. 모두 20가지의 이 지침을 후원자 여러분께 소개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황님의 착좌후 가장 첫 번째 공식행보가 이탈리아 남부의 람페두사 섬에서 곤경에 처해있는 난민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지요. 그만큼 교황님의 이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십니다. 이제 20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소개합니다.

1. 이민과 난민에 대한 집단적이거나 독단적인 추방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안전하고 자발적인 이민이나 재정착을 위한 합법적 통로를 늘려야 한다.
3. 깊은 존중에 근거한 개개인의 안전이라는 가치는 국가 안보 문제와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4. 이민은 출신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5. 이민은 착취, 강제 노동,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하여 도착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자신의 행복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자신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제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동행 없는 미성년자나 가족과 떨어진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다루어야 한다.
8. 모든 미성년 이민은 국제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9. 교육의 기회는 모든 미성년 이민과 비호 신청자와 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10.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보건과 기본 의료에 관한 권리를 존중받으며, 복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
11. 국제 협약에서 언명한 대로 국적을 가질 권리에 따라 이민들은 결코 무국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출생 때에 시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12. 어떤 곳에서 습득한 자격이라도 인정함으로써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의 역량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3.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직업적으로 포용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4. 가정의 통합과 행복은 언제나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15.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들은 같은 조건을 지닌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16.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민 온 이들과 거주민의 요구를 모두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7. 모두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8. 두 문화 모두의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쌍방향 과정으로서의 통합을 증진하여야 한다.
19.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과의 연대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홍보하여야 한다.
20. 출신국에서의 재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황님의 권고를 간단히 요약하면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라'입니다. 법적, 정책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들 개개인이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대와 연대 그리고 인간존중의 길들도 함께 모색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연말 연시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공동체 소식

#### 서울가톨릭 상호문화센터 소식\*

2017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알록달록 아카데미" 공모사업을 지난 3월부터 한국어교실, 무지개공방(재봉교실), 요리보고 세계보고(다문화 요리교실)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일구어낸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10월 23~25일까지 『알록달록 전시회』를 성북동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이주여성들과 축하하러 오신 140여 명의 방문자들로 전시회의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무지개 공방에서 만든 앞치마, 가방, 옷, 쿠션 등 여러 가지 소품과 한국어교실에서 공부하여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과 글짓기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보고 세계보고에서 만든 국가별 음식들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제1회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축제』에 참석하여 모든 작품들을 전시하였고 더불어 음식 부스와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3개의 프로그램들로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성공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관심 갖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베트남공동체 소식\*

베트남공동체는 10월 22일에 해미순교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날 이주노동자 156명이 참석하여 함께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렸습니다. 타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의 순교성인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 베다니아의 집 소식\*

10월에는 베다니아의 집 남성쉼터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노후된 부엌가구와 바닥과 벽지, 조명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일부 가구들도 교체하여 산재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를 맞을 준비를 새롭게 마쳤습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어린이 미사 후 축복



▲ 국립어린이 박물관 견학

### 문화알림 인사예절 2편



도시와 지방의 인사법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도시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만나면 악수도 하고 서양처럼 가벼운 포옹도 하고 뺨을 맞대어 친근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인사말부터가 다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가족의 상황을 묻고, 그 다음에 가족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 "댁의 양은 살도 토실토실 찌고, 새끼도 잘 낳고, 젖도 잘 나오지요? 집안 식구들도 모두 평안하십니까?"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끝나면 좀 특이한 인사를 합니다. 양팔을 'ㄴ'자로 내밀어 상대방의 양팔에 포개어 놓고, 허리를 살짝 굽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팔을 포개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장자면 그 사람의 팔이 위에 오게 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 아래를 받쳐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며 손을 흔들거나 서로 껴안고 두 뺨을 차례로 맞대는 인사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윗사람들에게는 전통 인사법인 '마노 뽀(Mano Po)'를 하는데 이 인사는 윗사람의 손가락 네 개를 잡고 손등을 이마에 살짝 갖다 대면 됩니다. 가장 공손하고도 존경을 표하는 인사법입니다. 필리핀에서 머리는 가장 신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달리 머리 숙여 인사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도 절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공수'라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왼손을 편 상태에서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 안에 포개어 넣는 것으로 이 때, 양팔은 어깨 정도 높이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과거에는 많이 하던 인사이나 이제는 나이 많은 노인들 중 일부 말고는 거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